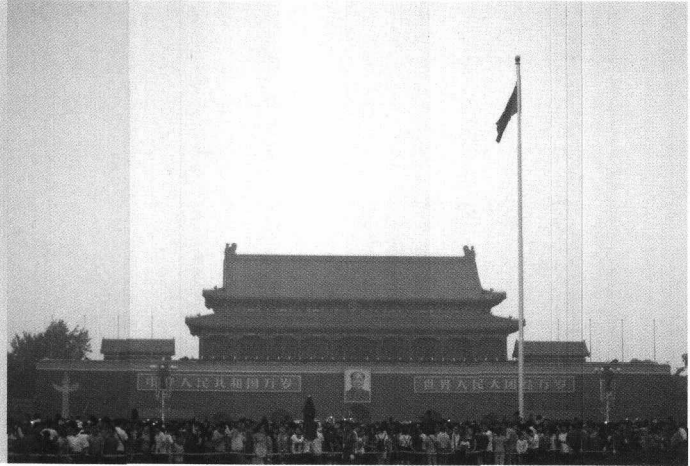


# 해외리포트

## 조선족 추장(?)의 중국 배낭여행기



이인배 |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성 | 중국 절강대학 교수

중국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와 소득 증대,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중국 여행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중국 관광 그린북>에 따르면 중국 여행객 수는 연평균 11.7% 증가하여 21억 명을 돌파했고, 관광 수입도 연평균 18.9% 증가해 1조 2,600억 위안에 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관광국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2007년 71위에서 2010년에 39위로 성장하였고, UN 세계관광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4대 해외관광시장이자 아시아 최대 해외관광 자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하여 세계 관광시장의 8%를 점유하고, 2020년에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1).

이러한 중국의 여행지 중에서 중국의 전문여행서적에서 추천하고 있는 중국외 관광명소 중 20대 명승지에 속하는 광서 계림, 호남 장가계, 안휘 황산, 절강 항주, 북경, 내몽고 호화호트, 백두산 등을 배낭여행을 떠나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 I. 계림산수갑천하(桂林山水甲天下)에서 여행 첫발

### 1. 중국의 첫 방문지, 산수(山水)가 아름다운 계림(桂林)

중국 여행의 첫발을 2011년 6월 29일에 '계림산수갑천하(桂林山水甲天下)'로 알려진 계림에 도

착하였다. 계림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는 중국이 1992년 8월에 한국과 수교를 하고, 관광을 개방하였을 때 1993년에 계림 도화강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맨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행지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계림(桂林, Guilin)이라는 지명은 예로부터 계수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계수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라는 뜻이다. 계림은 '계림의 산수는 천하제일이다'라는 명성을 들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지 중의 하나이다. 빼어난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예로부터 시인과 화가들의 글과 그림의 소재가 되어왔던 곳이다. 계림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이한 36,000개의 봉우리들 때문에 특별히 가볼 만한 곳을 정해놓지 않아도 좋다. 환상적인 종유동굴 노적암과 천하제일 리강 유람, 계림시내의 자금산 독수봉, 칠성암공원, 상비산, 첩채산, 복파산 등이 유명관광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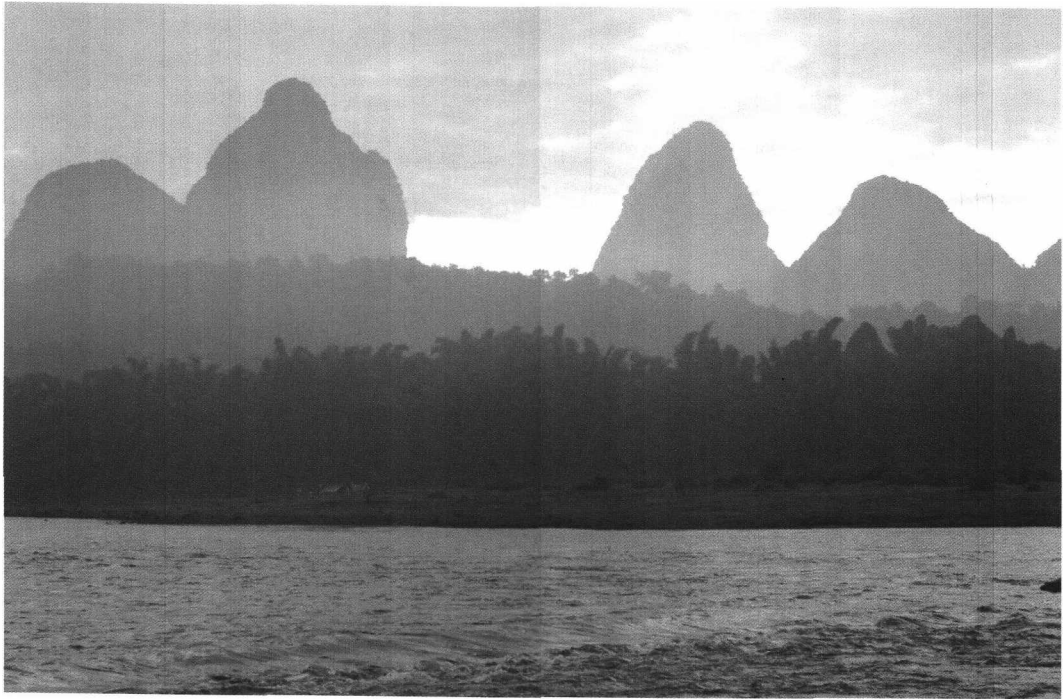
## 2. 양제(陽堤)와 양삭(陽朔)에서의 민박과 리강 유람

계림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답게 숙박비가 만만치 않았다. 때문에 장기간의 배낭여행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계림시내에서 하루만 자고 계림역 광장에서 출발하는 양삭행 시외버스를 타고 중저가 숙소를 찾아 출발하였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중간에 버스를 내리게 되었다. 이유는 버스안에서 만난 한 중국 새댁이 양삭에 가면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계림 시내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숙박비가 비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경치가 아름답고, 조용하면서도, 양삭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최근에 현대시설로 지은 펜션형 민박이 양제라는 곳에 있으니 그곳에서 체류할 것을 권유하였다.

처음에는 민박을 안내하는 호객사원으로 생각하고 찻점해 하다가 순박한 모습에 이끌려 중간에서 버스를 내렸다. 이 사람은 양제 리강변의 펜션을 소개해 주었는데, 하루에 100위안하는 숙소였다. 리강변의 절경이 한눈에 보이고, 에어컨과 화장실, 나무침대가 갖추어진 원룸형 방이었다. 한국 유명 관광명소의 펜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중국의 관광개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제에 숙소를 정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민박을 안내해준 사람은 호객사원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면서 살림을 하며 어린아이를 키우는 동네의 젊은 새댁이었다. 이 후 민박이외에도 동네 식당과 시골장터를 안내해 주시고 하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도 보여주면서 자기 집에서 홈스테이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집은 전통적인 흙집에 부엌에는 골동품 물동이가 있고, 거실에서 닭을 키우고 있어 전통적인 장족 원주민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 해외리포트



양제에 머물면서는 민박을 소개해준 새댁의 남편이 운영하는 유람선으로 계림관광의 백미인 리강을 유람하였다. 이른 새벽에 어둠을 헤치고 리강의 첫 물길을 가르며 계림에서도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양삭까지 배를 타고 왕복하였다. 끝날 것 같지 않게 이어지는 강줄기와 그 강물을 막고 선 봉우리 앞에 간간이 나타나는 작은 강변마을, 가마우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강촌 어부들, 강변의 초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물소떼, 빌거벗고 먹을 감다가 유람선을 보면 손을 흔드는 아이들, 곳곳의 작은 계곡에서 리강으로 쏟아지는 하얀 물줄기들……. 그림처럼 펼쳐지는 풍경에 한동안 넋을 잃고 있자니 어느새 아침 동녘이 밝았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장관이었고, 나의 머릿속에 영원한 영상으로 기억이 되었다.

양제의 민박에서 3일간을 머물고 나서는 계림 유명관광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양삭을 찾았다. 양삭에서는 여관급 숙소를 선택하여 민박보다 두 배 요금으로 체류하며, 양삭의 관광거리와 리강의 자연경관, 역사유적들을 배낭을 메고 걸어서 여행을 하였다. 원래 양삭의 여행은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많은데, 여름철에 너무 더운 탓에 자전거 여행보다는 걸어서 양삭의 구석구석을 다녔다. 양삭의 西관광거리에서는 계림여행을 기념하여 도자기 목걸이와 홍목 다도용기 등 몇 가지의 공예품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양삭 여행의 추억을 도자기 목걸이에 담아 걸고 중국여행의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 II. 장가계와 황산에서 만난 중국 명산

### 1. 봉우리 삼천에 팔백개 물줄기가 장관인 장가계(張家界)

장가계는 무릉원(武陵園)에 속하며 입장료는 245위안<sup>1)</sup>이다. 유네스코는 1992년에 이곳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였고, 중국인들도 계림·구채구·황산과 함께 최고의 경치로 사랑하는 여행지이다. 장가계는 예로부터 '봉우리 삼천개에 팔백 물줄기(峰三千 水八百)'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별유천지 비인간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라 전하고 있다.

수천개 봉우리가 기묘하게 어울린 장가계는 보는 곳마다 한폭의 산수화지만 그 중에서도 남천 일주(南天一柱)가 우뚝 솟아있는 황석채(黃石寨), 햇살 받은 물결이 금빛으로 일렁이며 세상시름 잊게 하는 무릉도원 금편계(金鞭溪), 회오리 모양이 기암괴봉이 줄지어 늘어진 황사채(黃獅寨), 깎아지른 절벽 꼭대기에 한가로이 걸쳐진 천하제일교(天下第一橋)가 불 만한 사도구(沙刀溝), 기묘한 봉우리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조천관(朝天觀) 등을 2일 동안에 등산하였다.

장가계는 최근 영화 '아바타'의 배경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급격하게 개발되었고, 한국관광객이 매년 30%이상 방문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여행사의 안내가 당초 계약과 달리 여행일정을 만나질 남기고 취소한 점을 제외한다면 중국 산수화의 원본을 만난 감동을 주는 여행지였다.

### 2. 8시간 빗속 하산, 산중에 산 황산(黃山)

장가계에 이어 황산으로 가려는데, 여름 성수기라 장가계행 기차표가 없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황산에 인접한 응담(鷹潭)까지 가는 기차표 326위안짜리 침대아래칸<sup>2)</sup>을 구해주어 새벽 1시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황산까지는 다시 5시간 정도 다른 기차로 가야하는데 여기에서도 기차표가 없었다. 그런데 같은 침대칸에 같이 승차했던 중국 젊은 친구들의 도움

1) 장가계 입장료금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245위안으로 한화 47,000원 정도임.

2) 중국기차의 침대실은 4칸침대, 6칸침대가 있는데, 6칸침대는 상·중·하칸이 있어 각 칸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해외리포트

으로 입석표를 간신히 구해 무사히 황산에 도착하였다.

황산역에 이른 아침에 도착해서는 장가계 여행패키지상품의 실패를 고 혼삼아 개인배낭여행을 위해 안내지도를 구입하였다. 그리고는 버스편으로 황산입구의 탕구에 도착하여 한국식당을 찾아 오랜만에 한국음식으로 된 장찌개를 먹으며 황산의 여행정보를 수집하였다.

황산은 중국의 최고 명산으로 5악 즉, 태산, 화산, 숭산, 형산, 항산보다 월등히 아름다워 '황산에 한번 오르면 다른 산은 찾지 않게 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황산은 최고봉인 연화봉, 천도봉을 축으로 7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황산에서 특히 유명한 것이 소나무(奇松), 바위(怪石), 구름(雲海), 온천(溫泉), 겨울눈(冬雪)으로, 이 다섯 가지가 동양화처럼 펼쳐져 '황산오절(黃山五絕)'이라 일컫는다.

황산의 등산은 탕구를 출발하여 윤곡사, 백아령, 시신봉, 북해빈관, 청량대, 배운정, 서해대협곡, 비래석, 연화봉, 영객송, 천도봉, 자광각을 거쳐 하산을 하였다. 등산을 하다보면 황산이 오래전 바다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황산의 운해를 의미하여 전해(前海), 천해(天海), 서해(西海), 동해(東海), 북해(北海) 등 다섯 개의 바다로 나누고 있는데, 등산을 하면서 이들 운해의 절경을 감상하였다.

황산의 정상을 등반한 후 하산하면서 광명정에서 만난 여름비와 일선천의 좁은 등산로 구간은 여름 관광성수기의 여행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케이블카 탑승 2km를 남겨두고 8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만들어내는 기암절벽의 폭포수는 선경(仙境)을 연출하여 등산과 하산을 기다리며 생겨난 피로감을 잊게 해 주었다. 앞의 일정에 여행을 한 장가계는 여성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 산이었다면, 황산은 남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명산이었다.



### III. 항주 서호유람과 북경 천안문 국기계양식의 단상

#### 1. 걸어서 3일 서호일주, 연중 아름다운 항주

황산을 떠나 절강성의 성도 항주는 버스여행을 하였다. 항주에 저녁 때쯤 도착하여 절강대학의 초대소에서 머물기 위하여 일전에 장기 체류를 했던 곳을 찾았더니 수리중이었다. 더구나 대학에



서 운영하는 호텔도省直단위의 대형 행사로 방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근처의 체인호텔인 루지아(如家)을 찾아 회원가입을 하여 간신히 방을 구하고, 다음날부터 항주시내와 서호유람을 시작하였다. 항주는 서호와 악왕묘, 영은사, 육화탑, 용정, 징향운하 등의 유명관광지가 있다. 계림·장가계·황산에서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강과 산을 찾는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항주여행은 버스와 도보로 다니면서 호수와 역사문화유적을 찾는 도시관광을 하였다.

항주의 볼거리는 서호 근처에 몰려있고, 그 주변의 거리가 항주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다. 서호의 둘레는 약 15km 정도이다. 고목에 앉은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나절,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서호 주변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노부부의 모습에서부터 저녁나절 낙조를 즐기며 노닐 것은 젊은 연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 더욱 멋졌다. 특히, '서호 10경(西湖十景)'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변의 경치와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연분홍빛 연꽃이 아름다운 곡원풍하(曲院風荷)로부터 서호에 비쳐지는 일몰이 아름다운 뇌봉석조(雷峰夕照)까지 10경 모두를 3일 동안 걸어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아름다움을 만끽하였다. 항주를 떠나면서는 관광기념품으로 청석으로된 낙관목걸이와 옥팔찌를 구입하였다.

## 2. 매일 새벽 구름떼 관광객, 천안문 국기계양식

항주(杭州)를 떠나 다음 여행지인 내몽고로 가기 위하여 북경으로 향했다. 항주에서 북경까지

## 해외리포트



일반 철도로는 1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중국 고속철도로 6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다.

북경남역에서 내몽고행 기차표를 사기 위해 북경서역으로 가서 10시 37분에 내몽고 호화호특으로 출발하는 기차표를 사고 새벽과 아침시간을 북경에서 보내야 했다. 어딘가 숙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그런데, 언젠가 천안문광장 국기게양식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정보를 접한 기억이나 천안문광장으로 달려가 잠깐 진행되는 국기게양식을 관람하였다. 이날 운집한 관광객들이 8만여명 쯤되며, 매일 이 정도 인파가 모인다고 관광객들을 통제하던 공안이 알려주었다.

북경의 천안문광장은 북경의 얼굴로 중국 근대사의 상징적인 곳이다. 1919년의 5·4운동, 1966년 문화대혁명, 1989년의 민주화 시위가 이곳에서 벌어졌다. 과거에는 이렇게 집회장소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다. 천안문광장에 들어서면 인민영웅기념비, 인민대회당, 혁명박물관, 역사박물관, 모택동 기념관 등의 외관을 볼 수가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천안문 뒤쪽에는 자금성이 있다. 아주 짧은 시간의 천안문 광장의 국기게양식 관람은 이번 여행에서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인상을 심어주었다.

## IV. 내몽고의 초원과 사막에서 특이여행

### 1. 끝없는 초원, 사람과 말이 함께 생활하는 호화호특(呼和浩特)

북경서역에서 내몽고자치구의 성도인 호화호특으로 10시 37분에 출발하는 열차가 지연되었다. 12시가 다되도록 출발시간이 안나오길래 기차여행의 또 다른 재미인 찐계란을 사먹다 기차를 놓칠뻔한 사건을 뒤로하고, 밤새 기차로 달려 이튿날 도착하였다. 기차에서 첫발을 내딛으니 푸른



서호 일몰 서호 버드나무길 서호 정자 서호 연꽃 천안문 국기계양식 국기계양식 인파 국기계양식 인파2

하늘과 맑은 공기가 다가왔다. 도착 후 여행가이드가 안내를 해준 숙소를 찾았다. 숙소는 기차역 앞에 슬럼가 형태의 골목안에 있어 불안해 하니 다른 숙소를 구해주었다. 시내 대로변의 3성급 호텔은 성수기인 관계로 하나 남은 방을 평소가격보다 좀 비싸게 간신히 구해서 하루를 머물고, 다음날 바로 오탑사, 왕소군묘 등이 있는 시내여행을 뒤로하고 초원여행을 시작하였다.

초원여행은 우리 일행 이외에도 대련에 유학을 와서 여행을 떠난 유학생 두 명이 합류를 하여 일행이 되었다. 시내에서 초원까지는 3시간 쯤 걸렸다. 초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락(馬乳酒)을 마시고, 몽고식 환영의식이 있었다. 그리고는 바로 옵션 상품인듯한 말타기 체험을 권유하여 말을 타고 약 2km 정도 떨어진 초원에 있는 몽고족 켈(이동식 천막집)을 방문하여 마유(馬乳)로 만든 비스킷과 치즈, 전통차를 마시고 돌아왔다. 나중에 유학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몽고에서 말 한 마리 가격은 1,500위안이라 하였다. 그런데, 한 명에 350위안씩에 1시간 정도의 체험을 하다니 매우 비싼체험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초원에서 말타기 체험을 하기는 내몽고의 초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의 값으로 위안을 삼았다. 저녁시간 전에는 초원에서 펼쳐지는 몽고씨름과 말경주를 관람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먹기전에는 식당옆 기념품 가게에서 랑야목걸이와 동물뼈로 만든 팔찌를 구입하고, 식사는 양을 통째로 구운 몽고의 양다리 전통요리를 별도로 구입해서 아이락을 곁들여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씻었다. 그리고는 몽골의 캄캄한 밤에 피어오르는 초원여행자들이 펼치는 캠프아이어의 불빛을 뒤로하고, 내몽고 초원의 밤하늘에 수놓은 은하수 길을 걸으며 몽고족 켈의 숙소에서 사람과 말이 함께 생활하는 내몽고에서의 신비한 밤을 보내었다.

## 2. 고속도로 역주행 8시간만에 도착한 사막여행은 취소

내몽고 초원에서 꿈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새벽에 일어나 끝이 없이 펼쳐진 목장의 초원을 산책하였다. 아침은 어제 먹은 아이락(馬乳酒)의 숙취해소로 우리의 해장국처럼 매콤하게 끊여낸 양내장탕으로 아침을 먹고 사막여행을 출발하였다. 사막여행을 하러 가던 중 우리일행에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들에게는 사전에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사막으로 가는 다른 여행가이드에게 넘겨져 여행가방과 함께 인수인계가 되었다. 그리고는 두시간쯤 가서 동물원이 있는 어느 시골의 버스정류소에 몇몇 중국관광객들과 함께 내려져 다른 차로 갈아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시간 쯤 기다렸는데 승용차 한 대가 와서 우리를 태우고 사막으로 향하였다. 일행 중 중국어를 하는 유학생에 의하면 우리를 태우러 올 예정인 관광버스는 차가 막혀 언제 올지 몰라 우리는 외국



## 개외리포트

인이라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임시차를 임대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임시로 대체된 승용차로 사막여행지로 가던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창밖의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며 가다가 또 다시 이색적인 경험을 하였다. 여름 성수기라 그런지 앞에 차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앞에 가던 차들은 주차장처럼 그냥 서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의 갓길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주행선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들을 맞이하며 앞자리에 앉아 있던 나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동안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렇게 8시간만에 도착한 사막여행은 그 동안의 여행과는 달리 고난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사막여행지라고 도착한 목적지는 또 다른 황당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막여행지는 진짜로 사막이 아니라 내몽고 한 지방도시에 인접한 대규모 모래언덕을 사막여행지 형태의 테마파크로 조성한 곳이었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모래덧신과 발토시, 장갑, 모래방지머플러 등과 낙타, 오프로드 용 지프차, 모래썰매, 단체관광용 장갑차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1인당 무조건 200~300위안 정도를 내야 입장을 할 수 있었다. 광활한 사막의 모래언덕과 오아시스를 기대하고 찾았던 사막여행은 상술로 무장된 알박한 장사속 때문에 더 이상의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서고야 말았다.



## V. 백두산과 해란강가 일송정에서 바라본 용정의 감회

### 1. 人山人海, 여기가 줄서서 기다려 관람하는 백두산 天池

내몽고에서는 이색적이고 황당했던 여행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북경과 장춘을 거쳐 민족의 정기가 어려 있는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북경에서 장춘을 가는 기차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성수기여서 도저히 차표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암표를 사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 국경에 있는 백두산은 중국에서는 장백산(長白山)이라고도 부른다. 백두산은 중국 최대의 자연보호구로 삼림이 울창해 멸종 위기에 처한 각종 식물과 동물의 보고이다. 하늘을 향해 쪽쪽 뻗은 아름드리 미인송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며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치게 한다.



내몽고 초원전경    몽고궐 숙소    몽고식 전통씨름    말타기 묘기    양고기 몽고요리    고속도로 갓길역주행    사막여행 체험차

반면, 백두산은 언제까지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오래 전부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천지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여기저기 만들어진 돌계단이나 도로는 반갑지가 않다. 해발 2,749m인 정상 바로 턱밑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어서 등산의 묘미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1996년에도 올랐던 백두산 천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고 있으며, 오르내리는 지프차를 기다리는 시간만도 2시간씩을 기다려야 했다. 도시의 유원지처럼 줄을 서서 관람을 해야 하는 천지를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돌아보고 내려와 백두산 온천을 거쳐 장백폭포에 물보라의 장관을 내 마음의 화폭에 담았다.

백두산을 여행하고 난 후 연길에 머물면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무역의 관문인 도문을 찾았다. 북한으로 가는 두만강 다리는 입장료 20위안을 내고 북한과 가까운 다리 중간까지 걸어가 보며,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도문은 최근 무역과 관광도시로 많은 관광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돌아오는 길에 들러본 안도현은 고려 인삼의 본고장인 금산과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많은 인삼제품들이 관광특산물로 판매되고 있어 우리지역과는 경쟁관계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2. 해란강변 일송정의 선구자, 운동주의 '서시' 碑에서 옛날의 희망을 찾아

백두산을 오르고 난 후 용정을 찾았다. 용정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가곡 '선구자'의 배경인 해란강가의 일송정과 운동주의 서시가 있는 용정 대성중학교, 지금의 용정중학교를 방문하였다. 먼저, 해란강가의 일송정이 있는 비암산을 올랐다. 비암산의 옆으로는 해란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일송정은 비암산의 산 중턱의 봉우리에 있었다.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노송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과는 달리 일송정 소나무는 너무 왜소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이 건립했다는 일송정휴게소는 폐허로 변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일송정에는 가곡 선구자의 배경지가 궁금하여 찾아오는 한국 관광객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방문을 하고 있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는 노래속의 이상향과는 매우 다른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해란강변 일송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선구자는 없는 것일까?

일송정이 있는 비암산에서 내려와 용정시내를 걸으며, 운동주의 시비가 있는 용정중학교의 교정을 찾았다. 관광객들은 한사람도 없었고, 학교 운동장과 시설도 현대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어 황량한 느낌과 함께 적막감마저 들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운동장 옆에 시비에 있는 '서시'를 읽으며, 어두웠던 현실 속에서 고뇌를 통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갈망하던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 해외리포트



## VI. 청도행 기차를 탄 조선족 추장(?)

### 1. 32시간 기차여행, 기차안 중국인들이 조선족 추장이냐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여행하고, 다음 목적지는 한국에 한국과 인접해 있는 중국 동해의 관광도시 청도를 향하였다. 열차에서 청도로 가는 기차표를 구해보니 침대칸을 없고, 좌석표만 있어서 이를 타고 청도로 출발하였다. 승객들은 장시간을 청도까지 가면서 비좁은 좌석에 앉아서 각자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과 음료, 과일, 과자 등을 먹으면서 서로가 살아가는 얘기를 하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도 이들 틈에 승객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차안에 여행을 하던 중국사람들이 저가의 좌석입석표로 외국인이 여행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는지 한국의 돈과 신분증, 음식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서로가 대화를 하고 가던 중 내가 그 동안에 각 도시에서 관광기념품으로 샀던 각종 목걸이와 팔찌 등을 걸고, 수염까지 깎지 않고 피부가 새까맣게 탄 모습을 보고 혹시 '당신은 조선족 추장' 이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기차안에 한바탕의 웃음이 일어났다.

중국에 와서 계림과 장가계, 황산, 항주, 북경, 내몽고, 연길, 백두산, 도문, 용정 등의 많은 여행지를 배낭을 메고, 기차와 버스, 도보여행으로 다니면서 옷차림과 악세서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녔던 것이 외모상으로는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으로 보였던 것이다. 기차안에서 하루가 넘는 오랜 시간을 앉아서 여행을 하면 피로감이 있었겠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이러한 유쾌한 여행이 그 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게 해 주었다.

### 2. 청도, 맥주와 쇼핑의 관광도시에 방이 없다.

이튿날 오후에 청도역에 도착을 하여 역 가까이에 숙소를 찾았으나 마침 청다오 맥주로 유명한 청도가 해양축제 기간이라 몇 군데 찾아가 보았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택시를 타고 방을 수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국에 있는 여행사 친구에서 국제 전화를 통해 부탁을 하



가차안에서 만난 중국인들

였다. 중국의 택시기사는 여러 곳에 전화를 해보고 4성급 호텔을 구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차에 한국에 부탁한 친구가 마침 여행사에서 미리 예약한 3성급 호텔이 있어서 그 곳에 체류를 하면서 중국에서의 여행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상과 같이 배낭여행을 하며 살펴본, 세계의 거대 관광시장 중국관광의 동향과 변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0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5,566만 명으로 동기대비 9.4% 증가하고, 중국 관광산업 총수입은 5,900억 위안으로 19%가 증가하였다. 2009년 5월 1일부터 실시된 '여행사 조례'에서는 중국 관광시장의 외국인 투자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 외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해남도의 면세정책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해남도가 새로운 국제 관광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고, 상하이(上海), 시짱(西藏), 광시(廣西), 윈난(云南) 등 각 지역별 관광 진흥책을 통해 지방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당지역의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광시장의 새로운 변화 특성은 주요 소비층은 개방된 사고를 지닌 젊은층이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여행정보를 수집하고 친구나 가족, 직장동료와 함께 하는 그룹여행을 선호 있다. 그리고, 여행 계획 기간이 길고, 서양인들이 여행 경비에서 숙박비에 대한 지출이 큰 반면 중국 여행객들은 여행경비의 절반 이상을 쇼핑에 지출하고 있다.

국내여행의 경우 명승지 관광 등 단순한 유람에서 컨벤션,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관광, 리조트 레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부유층의 해외여행으로 현재 중국에는 약 96만 명의 천만장자와 6만 명의 억만장자들이 있고, 이들은 여가생활로서 주로 관광을 즐기고 있다. 2010년 천만장자들의 연평균 휴식일수는 15일로 연간 3회 정도 출국하고, 억만장자들의 연평균 휴식일수는 16일로 연 4회 정도 출국하였다. 또한, 여행 목적의 출국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여성과 자산 5천만 위안(한화 10억 원 상당) 이상의 부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해외 관광지는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몰디브, 싱가포르, 이태리, 스위스, 두바이, 하와이 순(대한상공회의소, 2011)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국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배상일, (2002), 『배낭여행 중국』, 선 미디어.  
 박지민, (2011), 『중국의 자연유산』, 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2011), 『중국의 경제동향』.